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5일 www.metroseoul.co.kr

빚 제로 다시살기 운동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빚 제로 다시살기 운동' 제안 기자회견을 마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회원들이 부채를 상징하는 검은 복주를 메고 금감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 채무자의 채권이 헐값에 거래된다는 점에 주목해 시민의 성금으로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의 '롤링 주빌리(일정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주는 기독교 전통)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도 진행하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펼쳤다. /뉴시스

삼성뮤직 음원시장 "으르렁"

오늘 엑소 컴백쇼 단독중계 계기로 본격 행보
새로운 성장동력 포석…애플·구글에 도전장

삼성전자가 삼성뮤직으로 '으르렁' 포효한다. 하드웨어가 강한 삼성전자의 콘텐츠 사업 행보에 업계 관심도 비상하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스마트폰 전용 음악 서비스 삼성뮤직은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15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컴백쇼를 연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삼성뮤직은 삼성전자의 음원 사업 야심작이다. 이용료는 무제한 음원 재생(스트리밍)의 경우 월 5000원이다. 경쟁사보다 1000원 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했다. 멜론이 시장 점유율 45%로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후발주자 삼성뮤직의 선전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삼성뮤직은 초절정 인기 그룹 엑소 컴백 쇼 단독 중계로 음원 시장에 강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데뷔 3년차 12인 남자 그룹 엑소는 히트곡 '으르렁'으로 음반 판매 100만장 돌파,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 부문 본상 등을 휩쓸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삼성뮤직이 단독으로 중계하는 엑소 컴백쇼에서 신곡 '중독' 무대와 뮤직 비디오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삼성뮤직 회원 전원에게 엑소 멤버 1명의 모닝콜 음원 증정 행사를 열었다. SNS로 지인과 이벤트 소식을 공유하면 멤버 12명 전원 음원을 선물로 준다. 이 때문에 삼성뮤직은 엑소 팬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마비를 겪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음원 사업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장르별로 음악을 골라 틀어주는 온라인 라디오 서비스 '밀크뮤직'을 지난달 미국에서 선보인 바 있다.

삼성전자의 등장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스트리밍 시장은 애플-구글-삼성의 3강 구도로 재편됐다.

구글은 지난해 5월부터 '구글 플레이 뮤직 올 액세스'를 서비스 중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해외 25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진출국을 늘릴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월 9.99 달러(한화 약 1만400원)에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 삼성뮤직 이용 요금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보유한 음원이 방대하다. 국내에서 들을 수 없는 음원도 많다.

시장 원조 애플 아이튠즈도 사업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튠즈 이용자 증대를 위해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단단한 하드웨어를 메울 소프트웨어가 빈약하다는 평을 들었다"면서 "K-팝 시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삼성뮤직은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시장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삼성뮤직이 갤럭시의 사업 솔루션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은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보훈처 제외된 업무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오후 열렸다. 정무위는 지난 10일 야당의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요구에 박승춘 보훈처장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전체회의가 파행됐고, 이날 여야 합의로 국가보훈처를 제외한 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한류, 자유로워지자

기자 수첩
전효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한류가 세계 속에 자리잡으려면 문화를 자유롭게 즐기는 태도가 절실하다.

지난 8일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첫 내한 공연이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있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의 태도였다.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그의 무대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공연 관계자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다.

국내 가수들의 콘서트 현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부분 공연장 입장에서부터 가방 검사를 실시하고 "카메라 넣어 주세요"라고 고함치는 요원들의 모습에 콘서트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경직될 수밖에 없다.

공연장은 콘텐츠 유출에 무방비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선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환경이다. 우리보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는 미국에서 온 브루노 마스의 공연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허용함으로써 브루노 마스는 DVD 판매 등 부차적인 수익에 일정 부분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공연 시간에서만큼은 관객에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사했다.

문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 여기에 공연을 경직시키는 규제들을 완화하는 정책과 그 순간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가수들의 '쫄이진' 지세까지 갖춘다면 일부 스타에 한정된 마니아적 성향이 강한 현재의 한류가 세계 속에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홍준표, 새누리 경남지사 후보 확정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에 홍준표 현 지사가 확정됐다.

홍 지사는 14일 오후 당원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4302표)를 넘은 4506표를 얻어 박완수 전 시장을 제쳤다.

홍 지사는 "본선에서의 압승으로 당원 및 도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제주지사 후보에 원희룡 전 의원, 울산시장 후보에 김기현 의원, 세종시장 후보에 유한식 현 시장을 각각 확정했다.

이어 18일 대전시장, 20일 대구시장·강원지사, 21일 충남지사, 22일 부산시장, 23일 인천시장, 25일 경기지사, 30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임을 위한…' 5·18 기념곡 지정 안돼"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4일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5·18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나 현재 애국가나 광복절, 3·1절 등 5대 국경일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좌초 화물선 北선원 시신 추가 송환

● 전남 여수 근해에서 침몰한 몽골 선적 화물선 '그랜드포츈1호'에 탑승했다가 숨진 북한 선원 시신 1구가 14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추가 송환됐다. 우리 해경은 침몰 당시 북한선원 16명 가운데 3명을 구조하고 시신 2구를 인양했으며 지난 8일 시신 1구를 추가 인양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상대로 537억원 청구

흡연자들이 담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이 이에 강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연관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 환자 등록자료, 한국인암 예방 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 및 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 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흡연 문제가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및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소송에 포함된 담배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월 한국담배협회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운영한 적이 있기에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소송은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 외에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담배회사들도 건보공단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담배회사 관계자는 "당장 소송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논의를 통해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13면>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자리 모인 3군 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왼쪽부터),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무인기 누가봐도 北 소행"

대남 도발·비방 중단 촉구

국방부는 14일 북한이 소형 무인기 침투사건을 '제2의 천안함 날조'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견된 소형무인기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며 "해상사격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대남비방도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소형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 명백한 증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북한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을 맞은 북한군 움직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과거에는 순안비행장에서 퍼레이드 준비를 했지만 현재는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방 중상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특히 남측이 무인기 사건을 북한과 연관시키는 것도 대북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의 사례로 꼽으면서 "남측이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 낼 음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조현정기자 jhj@

처장까지만 기소하기로

국정원장 등 윗선 개입여부 못 밝혀…'간첩사건 증거조작' 마무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명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중국 선양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양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된 국정원 권모 과장(50)은 자살기도 후 현재 병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조선호기자 mjun@metroseoul.co.kr

인명 구조하려면 이 정도는 서울 양천소방서 소방대원들이 14일 서울 양천구 안양천 운동장에서 서울소방기술경연대회를 대비해 속도방수 훈련을 하고 있다.

/양천소방서 제공

'경찰폭행'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감찰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부친 박모(53)씨의 구속영장을 관할 검찰청 검사가 기각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이 진행됐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찰총장의 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가 관할 고검인 서울고검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11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경기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수사를 지휘한 성남지청 검사는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입건토록 했다.

검사는 박씨가 초범이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박 선수의 해외 경기에 지장을 줄 우려 등을 감안해 기각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대혁기자 yellh@

전역 장병 '일자리 박람회'

국방부는 17~1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전역예정 장병과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기관과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청년위원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노비즈협회, KB국민은행 등 17개 기관이 후원하고 포스코·농심·삼양그룹 등 국내 대기업과 대웅제약, BGF리테일, 산도리코 등 우수 중견기업 등 28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업체 인사담당자와 개별 면접을 통한 취업 알선과 창업 상담, 교육, 모의 면접체험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황대혁기자

신기한 버섯 다 모였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신기한 균류자원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버섯과 동충하초 등 균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통' 같은 경찰서 달라진다

조사·업무 공간 분리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경찰관이 한 공간에 뒤섞인 현재 경찰서의 풍경이 확 바뀐다.

경찰청은 조사와 업무 공간을 구분하는 등 경찰서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찰관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경찰서 구조상 조사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경찰관이 업무를 보거나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혼란을 틈 타 도주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조사 전용실 등을 마련해 일반 행정 공간과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수사 공간을 구분하기로 했다. 일반 민원인의 대기 장소가 확보되고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사 및 대기 공간도 분리된다. 증거물이나 서류 보관 등을 위한 특수 공간도 마련된다.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과 수사 부서 간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할 수 있게 동선을 고려한 설계가 적용된다.

경찰은 6개월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찰서에 우선 표준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송태종기자

孝 주제 만화·캐릭터 응모하세요

메트로신문사·경민대학교 주최 내달까지

메트로신문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민대학교 국제 효만화센터와 2014 국제 효만화 공모전을 공동 주최합니다.

올해로 여섯돌을 맞는 국제 효만화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메트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이 후원하고, 단일 공모전 사상 최대의 응모 작품수를 기록하는 최고 권위의 '효' 공모전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응모분야: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응모주제

1.만화/애니메이션 부문(택1)–내가 꿈꾸는 효도/여러 '엄마 힘내세요!/나에게 효도란(효경필답)

2.캐릭터 부문(택1)–울곡 이이 관련

▲응모대상

1.한국 유지 초등 중등/고등, 일반, 대학부문 지원가능(형식관초)

2.외국–유지, 초등, 중등/고등, 일반, 대학부문 지원가능(다문화특별부문:해외/재한국인)

▲응모기간: 2014년4월15일~5월10일 (당일 우편소인 유효)

※작기운영상 제출일 준수가 어려운 경우 선접수도 가능

▲수상작 발표: 2014년 5월중(예정)

▲작품규격: 1절(271×394㎜)

▲제출물

1.작품원본, 응모신청서

2.응모신청서는 1작품당 1부씩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yoman.com)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1 142/온라인접수시 kwat@metroseoul.co.kr

▲문의전화: 02-730-2100 메트로신문사 경영기획실

▲참가비: 없음

metro

강동,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서울시 강동구가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관내 과세대상 법인들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중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회

서울시 노원구는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동대문구, 창업강좌 개최

서울시 동대문구가 15~16일 이틀간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소상공인 창업강좌'를 개최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제도 ▲소점포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전략 ▲유통분석 및 점포 운영관리 등이다.

'무료 국제전화' 폭발적 호응

0044 무료국제전화

가입비나 기본료 없이 무료로 국제통화가 가능한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휴대폰에서 "1566-0044"로 전화를 건 다음 음성안내에 따라 국가번호와 상대방번호, #(우물정자)를 누르면 국제전화 요금없이 국내통화요금만으로 국제전화가 가능하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통화분수에서 별도 과금없이 차감되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서비스이다.

새로 나온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통신사별 최대 300분 동안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분수를 초과하여도 국내통화요금만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사용자는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0044' 로 검색하면 '0044무료국제전화'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 이용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20개국이다.

1644-9546 www.15660044.co.kr

학교 주변 유해업소 2배로

지난해 학교 주변에서 유해업소를 불법 운영하던 334곳이 적발됐다. 전년 163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신 변종업소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38건, 성기구취급업소 35건, 전화방·화상방 18건, 노래연습장 16건, 당구장 14건 등의 순이었다.

유예기간(약 5년) 내 폐쇄토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업소도 신변종업소 59건, 숙박업 23건 등 106건으로 집계됐다. /송다혜기자

신헌 롯데쇼핑 대표 소환

검찰, 임직원에 억대 금품 받은 혐의로 신분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임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출석이 예정됐으나 취재진을 피해 한 시간가량 앞선 오전 9시께 검찰청사에 도착,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 등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1·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뒤 이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영업본부장 신모(60·구속)씨 등 다른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가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관련, 신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리베이트 등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구속했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신헌 롯데쇼핑 대표가 1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낀 세대' 베이비부머 힘내세요!

서울시가 50대 '베이비부머' 지원 프로젝트를 지자체 최초로 가동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교육 기능을 맡고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현재 2개소(은평·종로)에서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리고, 권역별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50+ 캠퍼스'를 5개소 설치해 서울 거주 146만 베이비부머들의 인생 재도약을 응원하겠다"며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0대 베이비부머는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경험에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기 은퇴를 강요받으며 60대 이상 어르신 대접도 못받는 '낀 세대'다. 특히 새로운 인생을 위해 자식 세대와 일자리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직업교육센터'와 '베이비부머 창업센터'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일자리 엑스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55세 대상 암 검진 본인 부담금(10%) 전액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상담 기능을 담당할 50+ 캠퍼스는 마포구(2016년)와 구로구(2017년)에 먼저 조성되고 2020년까지 5개 권역별로 확대된다. 이어 노후 자금관리, 인생 재설계 등 강의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은퇴설계 콘서트'를 올해 6회 개최하고 내년부터 늘려갈 방침이다.

이달 말에는 시니어포털 사이트 '50+서울'(http://senior.seoul.go.kr)을 열어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김민준기자

윤수미, 한국무용제전 최우수

동덕여자대학교 무용과 윤수미(사진) 교수가 최근 서울 아르코예술 대극장에서 열린 제25회 한국무용제전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2014 나비잠 II'이라는 작품으로 예술성과 세련된 안무구성, 무용수의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성대 참교육대상 수상

한성대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대한민국 참교육대상'에서 글로벌인재육성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성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번 참교육대상에는 한성대를 포함해 총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metro Russia

Дом поставили вверх дном

metro Brazil

Dilma cai seis pontos, mas ainda vence no 1º turno

호세프, 지지율 낮지만 연임 확실

브라질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마침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이 하락했다. 여론조사 기관 다타폴랴에 따르면 지난 2월 차기 대선에서 국민 44%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호세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이 되자 38%로 하락했다. 예상 득표율 하락에도 지우마 대통령의 연임은 확실시 되고 있다. 상대 후보 아에시우 네비스 후보와 에두아르두 캄푸스 후보의 지지율이 두 달째 17%와 10%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metro Paru

Locura sobre ruedas en San Miguel...

페루 '엔진없는 자동차 대회' 화제

페루 수도 리마의 산 미겔 지역에서 이색 자동차 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 조건은 '엔진 없는 자동차'. 개성만점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수공예' 자동차들은 400m 길이의 내리막 경주로를 달릴 수 있었다. 총 52개의 팀이 참가한 이 대회는 자동차 디자인의 기발함과 경주 도중 관객에게 보여주는 쇼맨십과 관객의 반응이 주 채점 기준이다. 우승팀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metro France

Connaissez vous le 7e c

'제 7의 대륙' 찾자! 佛 바다쓰레기 확인

한 프랑스 단체가 '제 7의 대륙'을 찾아 떠나는 이색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탐험가들은 다음달 5일부터 25일까지 북대서양 탐험에 나선다. '제 7의 대륙'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제 7의 대륙은 바다위에 떠다니는 수백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의미한다.

프로젝트 추진자인 파트릭 데존느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연구진들을 만나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오염된 바다를 취재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바다 오염 경각심 제고

제 7의 대륙 팀에서 촬영을 담당한 파브리스 메살은 "우리의 임무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확인하고 문제 지역을 화면에 그대로 담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국립우주연구센터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연구원 아리안느 부아는 "우리는 떠다니는 쓰레기를 확인한 뒤 좌표로 찍어 위성으로 정확한 위치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툴루즈 공대 학생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프로젝트 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존느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의 80%가량이 대륙에서 버려진 것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다양한 해양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질할 폴 기자·정리=심무리 인턴기자

침대·소파·세면대가 천장에?

러시아 '거꾸로 하우스' 등장… 뒤집힌 집안서 걷는 체험 '신기'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천장과 바닥이 뒤집힌 '거꾸로 하우스'가 등장해 화제다.

이 집에 들어서면 모든 것이 바닥에서 머리 위로 옮겨져 마치 자신이 거꾸로 걷고 있는 인상을 받게 된다. 거실 천장에는 소파가, 아이 방에는 침대, 부엌에는 냉장고, 심지어 화장실의 세면대와 변기도 천장에 붙어있다. 또한 바닥에는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들이 거꾸로 세워져 있다.

거꾸로 하우스 프로젝트 책임자 나탈리아 체호바는 "외국에서 유사한 건축 프로젝트들이 진행돼 큰 인기를 얻었다"면서 "모스크바에도 거꾸로 하우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만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꾸로 하우스는 모스크바 프로젝트 진행 당시 발견된 수정사항을 개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꾸로 하우스를 방문한 모든 관람객들이 가구를 직접 만져 보는 등 '뒤집힌 집'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거꾸로 하우스의 또다른 특징은 매우 사소한 것 하나까지 '거꾸로' 복제했다는 점이다. 체호바는 "지나치기 쉬운 것이지만 냉장고 속에 놓인 주스와 과일 등 모든 음식물도 거꾸로 놓여 있다"며 "거실 텔레비전 화면의 만화영화조차 거꾸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스크바 프로젝트의 팀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꾸로 하우스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가능했다"며 "물론 우리 계획을 현실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디자인을 완성한 뒤 가구와 집안 물건들을 특수 제작하고, 이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몇 차례씩 자리 배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하우스를 찾은 관람객 파올리나는 "신기하고 이상하며 재미있는 곳"이라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꾸로 하우스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니 놀랍다"며 "개성 넘치는 이 집에 살기 위해선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올가 솔가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IBK·씨티캐피탈 3만여명 정보유출 혐의 포착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도 3만4000명에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혐의가 포착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지난해 연말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의 정보 유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USB 자료와 관련해 금감원에 IBK캐피탈에서 3만5000건, 씨티캐피탈에서 10만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밀 검사 과정에서 이들 캐피탈사에서 3만4000명의 신규 유출건을 적발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씨티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대출 고객 정보를 A4 용지에 출력한 뒤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했는데 씨티캐피탈 역시 이와 유사한 경로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미란기자 alive@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코스닥
1997.02 (-0.42)	562.04 (+6.17)

금리	환율
2.87 (+0.01)	1040.50 (+4.50)

삼성, 5억 이상 보수 등기임원 최다

최태원·정몽구·김승연 회장 근로소득 100억 넘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회사 2148곳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 수는 모두 699명이었다. 이중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69명)이었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등기임원수(699명)는 전체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재직 등기임원 1만2748명(퇴직자·사외이사·감사 포함)의 5.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50대 288명(전체의 41.2%) ▲60대 277명(39.9%) ▲40대 65명(9.3%) ▲70대 53명(7.6%) ▲80대 7명(1.0%) ▲30대 6명(0.9%) ▲20대 1명(0.1%)이고 전체 평균 연령은 59.1세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1.9%인 13명에 불과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 가운데 남소영 SM엔터테인먼트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모두 총수 자녀이거나 오너가 출신이었다.

◆오너 최태원 회장 최고

연간 보수 5억원 이상을 기록한 699명 가운데 100억원 이상을 받은 6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은 41.8%인 292명이었다. 100억원대 보수액을 기록한 6명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301억600만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140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31억2000만원) 등 3명은 급여와 상여금 등을 합친 근로소득이 100억원을 넘었다.

김평섭 전 광안알센씨 부회장(201억9700만원), 박종원 전 코리안리재보험 대표(176억2600만원), 허동수 GS칼텍스 이사회의장(101억3000만원)은 퇴직금이나 스톡옵션 행사이익 등을 합쳐 100억원대였다.

◆비오너 전문 경영인 삼성 18명

보수총액 상위 100명 가운데 비오너 전문 경영인은 41명이었고 이중 삼성그룹 경영인들이 18명을 차지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여와 상여금, 성과급을 합쳐 67억7300만원으로 종합 순위 9위에 올랐고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62억1300만원),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50억89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만열 전 한국철강 부회장과 바호 전 현대백화점 대표가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50억6200만원, 44억90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정연주 전 삼성물산 부회장도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44억7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네이버의 개인 2대주주인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NHN 이사를 물러나며 급여와 퇴직금으로 43억7100만원, 김승곤 로엔케이 대표와 김남철 조이맥스 이사는 급여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합쳐 42억6900만원과 42억2400만원을 받았다. /김보람기자 kwat@metroseoul.co.kr

뉴스&뉴스

통신비 무료 혜택 쏜다 14일 서울 마포구 T월드 홍대직영점에서 열린 SK텔레콤의 창사 30주년 맞이 '비비G' 프로모션 '찾아가자! 페스티벌'에 참석한 방송인 클라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음달 25일까지 42일 간 전국 지점·대리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데이터 300MB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총 5041명에게 통신비 무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SK텔레콤 제공

SK텔링크, 골드번호 추첨

SK텔링크가 기억하기 쉬운 숫자로 구성돼 인기가 높은 일명 골드번호 배정을 위한 '골드번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SK텔링크 후불 서비스 신규 및 기존 가입자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배정번호는 1000, 2000 등 A000형과 0001, 0002 등 000A형 2가지 유형으로 총 140개의 번호가 부여되며 SK텔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국명기자

한맥증권, 사실상 퇴출 수순

한맥투자증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맥증권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한 결과,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금융위는 한맥증권에 주문 사고 때 360억원의 수익을 거둔 미국계 헤지펀드와의 이익금 반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현실성있는 증자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자구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민지기자

공정위, KT에 20억 과징금

중소기업 발주 부당 취소 혐의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일명 'K패드') 17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엔스퍼트에게 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자사향 태블릿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 출시할 목적이었다.

KT는 그러나 예상보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 하자·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잔여발주를 미루다 2011년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 취소에 해당한다.

KT 관계자는 "공정위가 2011년 당시 KT에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당하게 심의를 해 판결을 내렸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주원기자 hoa@

코스닥 연중 최고치 기관투자자의 매수세에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6.17포인트 오른 562.04포인트로 장 마감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억대 넘는 연봉 4년새 2배

직장인 소득 양극화 심화

임금을 통한 직장인들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청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 1억원 넘는 근로자는 41만547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근로자가 4년 전인 지난 2008년에는 전체 연말정산 신청자의 1.4%인 19만4939명에 그쳤다. 사실상 연봉을 1억원 넘게 받는 근로자가 4년 만에 113.1% 증가한 셈이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2008년 19만5000명 수준에서 2009년 19만7000명, 2010년 28만명, 2011년 36만2000명에 이어 2012년 처음으로 40만명 선을 넘었다. 이 중에서 상장사의 등기임원 연봉 개별공시 기준인 총급여 5억원 초과 근로자는 2012년 6096명까지 불어났다.

고액 연봉자가 증가하는 동안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늘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8년 976만9210명에서 2012년 1016만159명으로 4년 만에 4.0% 증가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비 1억원 초과자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2년 4.1%로 높아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자 간에도 임금을 통해 얻는 소득 면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중에도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에 100배 가량의 임금 격차가 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유진기자 min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현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71
2005년 5월 9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186

농협·외환·수출입 행장 '광폭 행보'

삼계탕 점심에 소통 콘서트까지 고객·직원 스킨십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신임 은행장들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3월 취임한 김한조 외환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그리고 지난해 말 취임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바로 그 주인공.

국내외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공통점은 '현장'으로 귀결된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고객 및 직원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는 것.

지난 2일 농협은행 구내식당에는 점심 메뉴로 삼계탕이 올랐다.

배식자는 김주하 농협은행장. 취임 후 각종 특강과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움직임을 넓히고 있는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나눠주며 얘기를 나눴다.

그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경영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11일 2014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난달 취임식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외환은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이후 첫 소통의 제스처였다.

이날 김 행장은 강서지역본부 영업점 전 직원 350여명을 만나 은행 영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은행의 장기 성장·발전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 직원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행장은 직원들에게 "영업력 강화와 개인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며 "경영진과 본점 부서는 영업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영업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취임 100일 이내에 지방 영업점을 포함한 전국 지역의 영업점 전 직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외연을 넓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취임 당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수은의 '역할론'이 중요하다"며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 등 고부가 가치 전략산업의 성장 동력 확충에 방점을 두고 수주경쟁력을 강력히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던데 따른 것이다.

수은은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규모를 1조3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기업들이 해외 정부 발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권선주 기업은행장 역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 권 행장은 '현장속으로 2014'라는 기치 아래 전국의 16개의 지역본부와 영업점 등을 돌며 현장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김주하 농협은행장이 지난 2일 농협은행 구내식당에서 점심 메뉴인 삼계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농협 제공

기아차, 쏘울 EV 1호차 SK이노베이션 전달 기아차 이삼웅 사장이 14일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 호텔 애스턴 하우스에서 SK이노베이션 구자영 부회장에게 쏘울 EV 1호차를 전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금값, 온스당 1400달러 갈까

선진국 인플레·인도 수요 회복 상승 기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금값 상승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값이 강한 상승 반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피터 시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면서 금값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의 부재를 연준이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금값에 대단한 호재"라고 판단했다. 연준이 여전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전철을 밟을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금값에 우호적인 여건이라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도 금값 상승을 낙관하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말에는 1400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값 상승의 배경으로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금 수요국인 중국의 올해 금 수요가 10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인도에서도 올해는 금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점을 꼽았다.

호주 ANZ 은행도 금값이 올 연말에는 1450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평균 금값을 1294 달러, 연말 금값은 1350 달러로 예상했으며 UBS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평균 금값을 1200 달러로 전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연내 폭락' vs '신흥국 기회'

美 나스닥 급락에 '제2 닷컴 버블' 논란 가열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가 연일 급락하면서 '제2의 닷컴버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일부 비관론자를 중심으로 나스닥을 기점으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올해 안에 대폭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증시 폭락론도 제기됐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 한주간 3.1% 하락하며 두 달여 만에 4000선을 밑돌았다.

표면적으로는 미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기업들의 순이익 감소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거품 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해외 전문가들도 잇달아 미 증시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미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는 최근 미 증시가 1년 안에 최소 1987년 블랙먼데이 수준의 폭락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우량주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하루만에 22.6% 곤두박질치며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파버는 "인터넷과 바이오테크 분야의 주가가 고점가 국면에 있다"며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도 올해 최대 3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증시가 오는 9월쯤 최대 15%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BOA는 그때쯤이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축소를 끝내고 금리를 올릴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스닥이 오는 하반기 반등할 것이란 반론도 나왔다.

박승영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나스닥지수는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는 오는 5월 중순까지 약세를 보이다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실적 좋아지니 주가도 '쑥쑥'

순익 늘어난 기업 47%↑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기업 중에 순이익 개선폭이 클수록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14일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702개사 중 전년과 실적을 비교가능한 61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과 주가 등락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013년사업연도에 실적이 호전된 기업의 주가는 올랐으며 지수 상승률을 초과했다.

전년 대비 순익이 늘어난 238개사의 주가가 평균 47.23%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업익이 증가한 258개사는 평균 42.54% 올랐고 매출액이 늘어난 306개사는 평균 38.14% 상승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0.58%를 모두 40%포인트 이상으로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순익 증가 상위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4위 국동의 주가가 209.35%로 가장 많이 치솟았다. 이어 신일산업(9위 206%), 삼익악기(3위 122.3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순익이 가장 크게 늘어난 농심의 주가는 8.66% 상승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슈퍼레이스, 20일 스타트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감독, 선수와 레이싱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수·조항우 등 라이벌 격돌 팀 포인트 도입 등 새 볼거리

CJ그룹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의 프로 모터스포츠 대회인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20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간다.

(주)슈퍼레이스는 14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미디어 데이를 갖고 2014 시즌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시즌을 맞는 이번 대회는 오는 20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파크에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8번의 경기를 갖는다.

올해 대회의 특징은 신·구 라이벌의 격돌이다. 김의수(CJ레이싱)와 조항우(아트라스BX)는 슈퍼6000 클래스의 원년인 2008년에 맞붙었는데, 올해 이 클래스에 조항우가 복귀하면서 또다시 라이벌전을 펼치게 됐다.

쉐보레 레이싱팀에서 활약하던 김진표는 금호타이어가 새롭게 창단한 엑스타 레이싱팀에 합류해 슈퍼6000 클래스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지난해 GT 클래스 3위를 기록한 팀106의 류시원도 슈퍼6000 클래스로 옮겨서 경기에 나선다.

이렇게 막강한 실력의 드라이버들이 슈퍼6000 클래스에 대거 출전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GT 클래스에 실렸던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슈퍼6000 클래스로 이동할 전망이다.

타이어 업체들의 경쟁 또한 흥미롭다. 슈퍼6000 클래스는 엔진 등의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선택에서 승부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새로 창단한 금호타이어의 엑스타 레이싱팀과 한국타이어의 아트라스BX 레이싱팀간의 라이벌전도 주목할 포인트다.

2014 시즌은 슈퍼6000 클래스 팀 포인트 규정이 신설돼 더욱 흥미롭다. 우승한 선수는 물론 팀에게 경기마다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순위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슈퍼레이스는 20일 태백 레이싱파크 개막전을 시작으로 총 8번의 경기가 열린다. 오는 5월 23~25일에는 이번 시즌 최초의 해외 레이스인 중국전이 상하이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성배기자 fiery@metroseoul.co.kr

스마트폰·태블릿·TV 등 성장세 주춤

올해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콘솔 등 5대 소비자 가전기기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발간한 '2014 TMT(기술·미디어·통신)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5대 소비자 가전기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75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두자릿수 성장을 해온 것과 달리 소비자 가전기기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5년동안 매년 8000억 달러 수준에 머무는 정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딜로이트는 예측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평균판매가격(ASP)이 하락하고 PC와 TV는 오히려 역성장한다는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딜로이트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375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2% 커진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2018년까지 4년간 1% 성장하는 등 성장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이 주춤해지는 이유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007년 19개월에서 2013년 24개월로 25%가량 길어졌다고 딜로이트는 설명했다.

태블릿은 올해 2850억대가 팔려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8.5인치 이하 태블릿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태블릿 ASP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기자

삼성SDS 글로벌 가속도

차별화로 올 매출 25%↑ 해외비중 50%로

삼성SDS(대표 전동수)가 올해 경영방침을 창의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으로 정한 것은 창조적 혁신과 도전을 통해 타사가 흉내낼 수 없는 차별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조기에 확보해 글로벌 사업확대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영목표를 전년 대비 25% 매출 성장과 해외매출 비중 50% 달성으로 제시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ICT서비스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통신사업 시너지 제고 차원에서 삼성SNS를 합병하고 해외 물류IT서비스 확대 등 글로벌 사업역량을 확대했다. 이 결과 매출 7조468억과 영업이익 5056억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삼성SDS는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교육·보안 등 고부가 핵심 솔루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복합 사업 수행 역량을 확보해 사업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사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주전략 모바일·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서서 미래 신성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1월 스마트 타운(Smart Town) 사업의 일환인 디지털복합공간(SCS)의 지식공유 서비스 'Knowledge Forest'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ICT서비스 기업인 삼성SDS가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수상한 것은 그간 도서관, 쇼핑몰 등의 공간에 디지털 기기와 유·무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복합공간 사업을 추진해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SDS는 특히 지난 2012년 Supply Chain & Logistics 글로벌 통합 솔루션인 'Cello'를 개발해 중국·동남아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중국, 동남아 이외에 러시아·중남미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고 1조 8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제균기자 [illegible]

유맥스, 콘텐츠 확보 '비상'

하루 4차례 재방송 불가피 지상파·케이블·IPTV 협력 필요

초고화질(UHD) 방송 전용 채널 '유맥스(U-MAX)'가 10일 본격 개국한 가운데 향후 콘텐츠 확보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홈초이스의 유맥스 채널이 본격 개국하면서 UHD TV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유맥스 채널에 가입하기만 하면 하루 20시간의 UHD 전용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현재 홈초이스가 확보한 UHD 콘텐츠는 약 200타이틀 100시간 분량에 불과하다.

홈초이스는 자체 개발한 UHD 화질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시장의 콘텐츠 대부분을 테스트했다. 그 결과 약 40%가 최소품질 조건을 충족해 일부는 구매 완료된 상황이다. 이미 확보된 30타이틀 150분 분량의 콜라물과 제작 구상중인 것을 합해 현재 100시간, 연내 200시간 가까이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맥스 채널 초기에는 ▲김미늘, 유란우, 허윤경 등 프로골퍼 3인방의 동계훈련 모습을 밀착 취재한 '리얼스토리 더 프로', 다양한 치어리더의 세계를 조명한 'Cheer Up' 등 다큐멘터리 ▲케이크 요정들이 주인공에게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 스윗 콜러코스터, 케익 위에 요정들'과 같은 애니메이션 ▲세계적인 영국밴드 뮤즈(MUSE)의 로마 올림픽 스타디움 콘서트 실황을 촬영한 'MUSE 라이브 인 로마' 등 공연 실황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방송한다.

다만 아직 콘텐츠가 부족한 만큼 유맥스는 일일 4시간에 걸쳐 방송을 보여주며 어후 4회에 걸쳐 재방송한다. 이렇게 일일 총 20시간의 방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홈초이스측은 당초 유맥스 채널의 이용료를 9000원으로 책정했지만 UHD TV 보급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유맥스 채널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료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최정우 홈초이스 대표 역시 "아직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콘텐츠 수급에선 압도적 우위인 지상파나 IPTV업계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 업계에서도 UHD 콘텐츠 제작 및 수급 확대를 위해 2016년까지 406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케이블 업계가 UHD 방송 상용화를 먼저 시작했지만 향후 경쟁력은 콘텐츠에 있다"면서 "막상 서비스를 시작하고 콘텐츠가 없다면 가입자들도 등을 돌리고, 결국 3D 방송의 실패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방송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상파, IPTV, 케이블 업계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 논의하는 협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가 나서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세환기자 [illegible]

로밍 서포터즈 지원하세요 LG유플러스는 5월에 해외 여행 계획이 있는 스마트폰 고객 중 50명을 '로밍 서포터즈'로 선발해 최대 10만원의 로밍 요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갤럭시S5 케이스에 친환경 기술이

100% 재활용 종이 사용…디자인 상 수상도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 친환경 신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글로벌 125개국에서 동시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의 매뉴얼과 포장 케이스(사진)에 100% 재활용 종이 포장재를 사용했으며, 고효율 저부하 충전기도 적용했다.

이는 갤럭시S3 이후 주요 스마트폰에 꾸준히 적용해온 것이다. 갤럭시S4의 경우 100% 재활용 종이 포장재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0여t을 절감하고 나무 약 11만 그루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친환경 모바일 패키지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14' 패키지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등에 이어 갤럭시S5에도 자연분해 비닐 포장재,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충전기 케이스, 석유용제가 포함되지 않은 콩기름 잉크를 적용하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illegible]기자

전경련, 휴가사용 독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각 기업 임직원들의 휴가 독려에 나섰다.

전경련은 회원사 협조공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주간(5월1일~5월11일) 기간에 임직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0여년간 우리 국민들의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관광은 정체상태에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소비활력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기업 임직원들의 휴가를 이용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내수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김두탁기자 [illegible]

대기업 이전 효과, 인근 분양 '好好'

소득수준 높은 배후수요 대거 유입 기대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대기업이 들어서는 지역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유독 많다.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및 관련 기업들도 함께 들어섬에 따라 주택 수요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기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상권이 발달하는 것은 덤이다.

14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마곡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 광교신도시 등 대기업 이전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관심이 선다. 이에 따라 직접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를 비롯해 임대소득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마곡지구, LG사이언스 주목

서울 마곡지구는 LG를 필두로 코오롱, 대우조선해양, 롯데, 이랜드 등의 업주가 계획돼 있다. 특히 LG그룹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LG사이언스파크에는 11개 LG그룹 계열사, 3만 명의 R&D 인력이 근무한다. 2017년부터 단계별로 준공해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LG사이언스파크와 인접한 B5-2블록에서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를 이달 선보인다. 전용면적 22~39㎡ 510실 규모로, 5호선 마곡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신세계몰, 이마트와 가깝다.

힘찬건설도 전용면적 22~30㎡ 312실 규모의 '마곡 헤리움 2차'를 이달 중 분양한다. C1-4블록에 위치하며 9호선 마곡나루역(6월 개통 예정)과 공항철도 마곡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단지다.

◆포스코엔지니어링 올 3월 입주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설 LG사이언스파크 조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포스코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등이 꾸준히 들어선 상태다. 올해도 지난달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입주했고, 하반기 1100여 명이 일하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이전도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은 RC 4블록에서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을 이달 말 분양한다. 호반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전용면적 63~113㎡ 전체 1834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과 지식정보단지역이 가깝다.

◆광교, CJ제일제당 연구센터

CJ제일제당은 광교신도시 첨단산업연구단지에 제약·바이오기술, 식품·사료기술 등 산하 4개 연구소를 통합한 연면적 10만여㎡ 규모의 'CJ제일제당 온리원 연구개발센터'를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CD-3블록에서는 현재 대우건설이 '광교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 22~42㎡ 전체 1712실로 구성돼 있다. 단지 안에는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를 포함한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4802@metroseoul.co.kr

"모델하우스에서 작품 감상하세요"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 중인 '송도 더샵 마스터뷰'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이 '나는 상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이티스트 초진 상석展을 관람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원룸·고시원도 층간소음 줄어든다

9월께 개정안 통과될 듯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과 같은 건축물에도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층간 가구간 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오는 15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재질과 두께로 된 바닥을 설치토록 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바닥구조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고, 경계벽, 칸막이벽의 재질과 두께 기준은 아파트보다 느슨하다. 이에 개정안은 바닥 및 경계벽, 칸막이벽에 대해 층간 이웃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벽, 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9월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옥기자

대우건설, 쿠웨이트와 CFP 본계약

대우건설이 지난 2월 낙찰통지서를 받은 쿠웨이트 클린 퓨엘 프로젝트(Clean Fuels Project) MAB2 패키지 EPC(설계·구매·시공)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대표 박영식)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 KNPC(Kuwait National Petroleum Co.) 본사에서 CFP MAB2 패키지의 계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계약식에는 쿠웨이트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와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 현대중공업 김외현 사장, 플루어(Fluor) 타코 데 한(Taco De Haan) 부사장 등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 퓨얼 프로젝트는 기존의 미나 알 아흐마디(Mina Al Ahmadi) 및 미나 압둘라(Mina Abdullah) 정유공장의 생산량을 일일 71만5000배럴에서 80만 배럴까지 확장하고 유황 함유량을 5%대로 낮춘 고품질 청정연료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13일 쿠웨이트 KNPC 본사에서 열린 클린 퓨얼 프로젝트 MAB2 패키지 계약식 후 발주처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총 3개 패키지(MAA, MAB1, MAB2)로 나뉘어 발주된 공사 중 대우건설이 수주한 MAB2 패키지는 미나 압둘라 정유공장의 설비를 개선하고 생산용량을 증대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은 약 34억 달러다.

대우건설은 현대중공업, 다국적 엔지니어링업체 플루어와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이뤄 공사를 수주했다. 앞으로 48개월간 공사를 수행하게 되고, 각사의 지분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1억3400만 달러(약 1조1800억원)로 동일하다.

한편 SK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등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한 다른 2개 패키지도 같은 날 본계약을 체결했다.

/박선옥기자

3월 주택거래 8만9394건…전년비 34.2%↑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4.2%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939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3월보다는 34.2%, 5년 평균보다는 19.4%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1분기 주택 거래량은 작년 동기보다 61.0% 증가한 22만7038건을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이 10만5259건으로 100.5%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방은 37.6% 늘어난 12만1779건을 나타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증가율은 1월 117.4%에서 2월 66.6%, 3월 34.2%로 둔화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만3921건) 거래량이 64.1% 증가하며 지방(4만5473건)의 14.1%를 크게 앞질렀다. 서울이 1만4448건, 강남3구가 2414건씩 거래돼 각각 66.6%, 51.0% 늘었다.

/박선옥기자

리니지·던파가 빅뱅·싸이보다 12배 더 벌었다

'미운오리' 게임 작년 수출 26억 달러 음악·방송·영화·애니 제치고 1위 등극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가 빅뱅, 소녀시대, 싸이보다 해외에서 12배나 많은 돈을 벌었다.

온라인게임 강국인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셧다운제, 게임 중독법 제정 등 정부의 관련 규제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선전한 셈이다.

14일 정책금융공사의 '게임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집계 결과를 보면 2012년 한국의 게임 수출액은 26억3900만 달러로 음악 수출액 2억3500만 달러의 12배에 달한다.

반면 수입액은 1억7900만달러로 압도적인 흑자 산업임을 입증했다.

게임 수출액은 2012년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전체 수출액인 46억1151만 달러의 57%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를 논할 때 게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다.

지식정보(4억4500만달러), 캐릭터(4억1600만달러), 출판(2억4500만달러), 음악(2억3500만달러), 방송(2억3400만달러), 콘텐츠솔루션(1억5000만달러), 애니메이션(1억1300만달러), 광고(9700만달러), 영화(2000만달러), 만화(1700만달러) 순으로 수출 규모가 크다.

게임은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PC, 아케이드(오락실)로 크게 구분된다.

2012년 전 세계 게임 매출액은 1117억5000만 달러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명목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1975억달러)의 10%에 이르는 큰 규모다.

비디오게임이 전체 매출의의 39.7%를 차지하고 있고 아케이드(22.6%), 온라인(18.9%), 모바일(12.5%), PC(6.3%)의 뒤를 잇고 있다.

이 가운데 모바일게임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LTE 통신망 확대 등으로 2011년보다 31.3%나 증가했다. 한국 게임 기업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모바일이다.

모바일게임의 수출액은 1억6500만달러 수준에 그쳤지만 2011년 대비 증가율은 402.1%를 기록했다. 온라인게임 수출액은 24억1086만 달러로 전체의 91.4%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6%에 이르고 일본(18.5%), 중국(12.2%), 영국(8.0%), 한국(6.3%), 프랑스(5.7%), 독일(4.6%), 이탈리아(2.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공사 측은 핀란드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를 예로 들며 "게임 산업은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게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액 현황
전체 수출액 46억1151만달러 (2012년 기준)

분야	수출액
게임	26억3900만달러
지식정보	4억4500
캐릭터	4억1600
출판	2억4500
음악	2억3500
방송	2억3400
콘텐츠솔루션	1억5000
애니메이션	1억1300
광고	9700
영화	2000
만화	1700

자료:정책금융공사 / 연합뉴스

꼼꼼 IT 리뷰 – 씨게이트 백업플러스 패스트

귀찮은 사진 정리도 자동으로 척척

"사진을 찍다보니 또 용량 부족이네."

DSLR카메라는 물론 스마트폰·태블릿PC 등으로도 사진·동영상을 찍을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같은 한탄 또한 늘어나곤 한다. 메모리카드나 스마트폰 등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PC나 노트북에 백업한 후 지웠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모두 사라져버린 황당함을 경험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럴 때, 찍은 사진·동영상을 자동으로 백업해주는 도우미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저장장치 전문업체 씨게이트가 최근 출시한 외장형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백업플러스 패스트(사진)는 이같은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물건'이다.

길이 116.9mm, 너비 82.5mm, 두께 22.35mm로 작은 수첩 정도 크기에 불과하지만 저장용량은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500개 이상 저장할 수 있는 4테라(TB)급 자랑한다. 그런데도 무게는 307g에 불과 해 카메라·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녀도 충분할 만큼 휴대성이 뛰어나다.

사용방법도 간단하다. 자체 백업 소프트웨어인 씨게이트 대시보드 최신버전을 이용할 수 있어 PC·노트북 등에 연결하면 새로 찍은 사진·동영상을 자동으로 백업받을 수 있다. 특히 USB 3.0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송속도가 1초에 220Mb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220Mbps다. 실제로 노트북에서 10GB 용량의 동영상·사진·음악 등을 백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분 10여초. 일반 외장하드에서 10분이 넘게 걸렸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무엇보다도 '백업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씨게이트 모바일 백업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백업기능이다.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콘텐츠를 와이파이로 바로 백업플러스에 담을 수 있다. 매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자동 백업을 설정해 놓으면 단말기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고민을 털어버릴 수 있다. 페이스북, 플리커, 유튜브 등에도 중요한 파일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클릭 한두번이면 끝난다.

사진·동영상 찍은 후 따로 정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다만 계속 사용할 경우 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몸체가 뜨거워지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국명기자 kmlee@

1억9000만원 잡아라… SKT ICT 비전 공모전 SK텔레콤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SK텔레콤 대학생 ICT 비전 공모전을 연다. 공모전의 주제는 'ICT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창출할 산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바뀌게 될 미래상을 제시하라'다. 역대 대학생 공모전 중 가장 많은 1억90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걸려 있다. /SK텔레콤 제공

물속에서 셀카 찍으세요

올림푸스한국 방수 카메라 'TG-850' 출시

스킨스쿠버 등을 하면서 셀카를 찍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림푸스한국은 세계 최초로 틸트형 액정을 탑재한 방수 카메라 스타일러스 'TG-850'(사진)을 14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수중 10m 깊이에서 완전 방수 기능과 모래사장에서도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방진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2.1m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 방지 가능, 영하 10도 온도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 등도 탑재해 진정한 아웃도어 카메라로 불릴만 하다.

특히 액정 화면의 각도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틸트형이라 180도까지 회전하면 물 속에서도 셀카를 찍을 수 있다.

21㎜ 초광각 렌즈를 장착해 좁은 공간의 셀카와 단체사진 등을 찍을 때도 매우 유용하다.

초당 60프레임의 풀HD 동영상 촬영과 1㎝까지 근접 촬영할 수 있는 슈퍼 매크로 기능, 360도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 파노라마 기능 등도 아웃도어 사진 촬영에 재미를 더한다.

/이국명기자

토종 '스윙' 100만 돌파 행사

국내 웹 환경에 최적화된 브라우저로 주목 받고 있는 줌인터넷의 '스윙'이 100만 설치 돌파를 기념해 감사 이벤트를 연다.

스윙브라우저는 한국 인터넷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듀얼엔진(웹킷+트라이던트 엔진)으로 제작된 유일한 국산 브라우저다.

줌인터넷 관계자는 "14일 현재 130만 설치를 돌파했다. 이는 출시 후 매달 30만명 이상이 설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벤트는 홈페이지(swing browser.com/event/1millionthankyou)에 30일까지 스윙 브라우저를 응원하는 글을 남기면 참가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PS4,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니콘 D3300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건보 자신만만 '담배소송', 최종승자는?

개인 잇단 패소에 소극적인 정부도 걸림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3개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 피해자가 KT&G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직후라 이번 담배소송 승패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등 협조 입증자료 확보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이 패소 판결을 받은 개인 소송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수진자 빅데이터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자체 연세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다. 특히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11년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주위의 예상과 달리 537억원으로 소송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승소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소송 액수를 낮추고 대상 환자를 줄이면 흡연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인과관계를 더욱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은 미국에서 불법 행위 및 유해성을 시인해 기존 자료가 존재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으며 담배회사 퇴직자 등 내부 고발을 통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추가로 입증해줄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역 기초 공역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서울시 등 담배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와는 차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등의 시민단체와 지역 약사회나 한의사회 등의 의약단체도 건보공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외국도 최종 승소 사례 없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배소송이 건보공단에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담배회사에 배상 판결이 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다. 암 발병과 흡연과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이 개인들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의 정부부처가 이번 소송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와 안행부는 담배소송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건보공단 임시이사회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는 KT&G의 전신인 담배인삼공사를 직접 관할했던 부처로 담배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는 담배를 통해 한 해에만 6조원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 담배소송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힘겨루기도 해야 한다. 담배소송을 제기한 당일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중 납세자연맹은 공단이 국민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담배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안선영(오른쪽) 건보공단 변호사와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 /연합뉴스

10만원대 압력밥솥 롯데마트는 롯데하이마트와 공동으로 기획한 10만원대 압력밥솥을 오는 17일부터 선보인다. 쿠쿠 IH 압력밥솥은 11만9000원, 쿠첸 IH 압력밥솥은 17만9000원으로 시중가 대비 20~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제공

"나는 사각팬티, 연인에겐 티팬티"

이성 상대에게 속옷을 선물 할 때는 야할수록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이 지난 3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최근 한 달간 남녀 속옷 구매량을 분석한 결과 T팬티, 섹시란제리 등의 '야한' 속옷의 경우 이성 구매 비중이 일반 품목에 비해 높았다.

최근 한달 간 G마켓에서 브래지어를 구매한 고객 중 남성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야한 속옷일수록 남성 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성 섹시란제리의 남성 구매 비중은 25%로 브래지어 품목 중 남성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남성 구매 비중이 높은 품목은 탑 원피스 등을 입을 때 필요한 누디-노라인 브래지어(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여성 팬티를 구매한 남성 비중은 품목별로 위생 기능성(18%), 삼각 기본(15%), 노라인 심리스팬티(14%) 등 10% 대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성 T 섹시팬티를 구매한 남성 비중은 34%로 다른 품목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브래지어+팬티로 구성된 세트 제품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남성 구매 비중이 12%를 차지했다. 섹시란제리 세트의 남성 구매 비중은 18%로 세부 품목 중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여성용 내의인 슬립과 캐미솔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G마켓은 슬립·캐미솔을 일반제품과 섹시제품으로 나눠 판매하고 있는데 섹시제품의 남성 구매 비중이 23%로 일반제품(18%)에 비해 5%포인트 더 높았다.

남성용 섹시속옷을 구매하는 여성도 증가해 한 달 간 남성 T 섹시팬티의 여성 구매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사각팬티의 여성 구매량은 11%만 증가했다.

/정경일기자

5월 황금연휴 예약 '소셜커머스'가 대안

쿠팡·티몬 등 행사 다양

황금연휴와 관광주간이 맞물려 있는 가정의 달 5월, 가족들과 뜻 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많지만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 숙소 예약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특가상품을 이용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소셜커머스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쿠팡은 '힐링'을 테마로, 부담 없이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제주도', '국내 여행 레저', '국내 숙박' 등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기획전을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

'티몬'도 이번 달 13일까지 '5월 황금연휴 마지막 찬스' 기획전을 연다. 제주여행, 국내 숙박, 캠핑, 레저서비스 등 다양하게 상품들이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 서귀포 특1급 KAL호텔이 66% 할인된 8만2600원부터(2인 기준, 조식불포함)이며 3월 신규 오픈한 샤모니리조트도 주중·주말 추가요금 없이 7만5600원에 판매한다.

'위메프'도 황금연휴를 맞아 알뜰여행족을 위한 '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펼친다. 해외여행 상품으로는 세부가 300 달러 상당의 옵션이 모두 포함된 패키지로, 최저가 74만1000원부터이며 홍콩은 항공권 상품이 최저 19만9000원부터다.

특히 위메프는 지마이다스 '편작'에서 마련한 '토비스 콘도 특가전(사진)'은 최고 82%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무주·도고·지리산 토비스 콘도 총 3곳의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 특가전은 이달 24일까지 진행하며 가격은 4만5000~6만1000원이다.

/안상현기자 prima@

'여름 패션' 남쪽서 올라온다

구매비중 60%가 호남

여름 패션이 가장 빨리 오는 도시는 지도상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대표 김기호)는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지역별 구매 고객 비중을 분석한 결과 여름 아이템을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도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달 들어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시작되며 대구·광주는 최고기온 27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으며, 서울은 23도, 춘천은 17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라도는 기간 내 전체 판매량의 57%가 여름 패션 아이템에 집중됐으며 경상도가 3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및 경기도는 26%, 강원도는 5%만이 여름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돼 지역별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온도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간 내 판매된 원피스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은 다양한 소재 및 디자인의 원피스가 고루 판매된 반면 전라도·경상도 지역에서는 민소매 스타일의 원피스가 많이 팔렸다. 주로 시스루나 쉬폰 소재의 옷들이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팬츠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었다. 경상도·전라도에서 판매된 팬츠의 49%가 핫팬츠나 7부 팬츠 등의 여름용 아이템이었지만 수도권 지역의 팬츠 판매량의 89% 이상이 일반 데님이나 면 팬츠로 나타났다.

정경림 아이스타일24 여성 트렌드 의류 담당 상품기획자(MD)는 "최근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여름 아이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상승했다"며 "예년 이맘때 중점적으로 판매되던 트렌치코트·재킷 등의 판매량이 줄어든 대신 반팔 티셔츠·민소매 원피스 등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학철 기자

직급따라 옷도 다르게…

TPO에 맞는 의상은 사회생활의 기본 예의

직장 생활에서 옷차림은 개성과 지위를 대변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아울러 항상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성실함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성이 강한 조직 문화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후배·상사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차에 따라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과장이나 차장 이상의 직급이면 후배 사원 관리를 비롯해 임원들과의 자리도 잦다. 유니폼에 가까운 재킷에 H라인 스커트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니트 소재를 활용해 단정하면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스타일링에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하려면 따뜻하면서도 부담 없는 페미닌 룩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어깨 튀는 문양의 프린트나 컬러보다는 네이비·화이트·블랙·베이지 톤을 고르고 클래식한 포인트로 우아한 매력을 더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대리급이라면 활동하기에 편안하며 전문성이 느껴지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활동적이면서도 어디든지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재킷만한 것이 없다.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컬러나 문양이 담긴 재킷으로 패션 센스를 발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입사원의 덕목은 책임감과 성실함이다. 성실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려면 걸맞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대리급에서는 컬러를 통한 변화가 좋은 방법이지만 신입사원의 경우는 자칫 과한 연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노톤의 깔끔한 재킷이 신입사원의 풋풋함과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신혜정 크로커다일레이디 디자이너실 이사는 "계절에서 연령에 따른 경계가 점점 없어지듯이 회사에서도 고리타분한 격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며 "하지만 직급과 TPO(시간·장소·상황)에 맞는 의상을 입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k.mom94@metroseoul.co.kr

"선풍기 준비하세요" 전국이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가전매장에 선풍기가 벌써 등장했다. 1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디지털전문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에 가득 들어찬 선풍기를 살펴보고 있다. /아이파크몰 제공

직장여성 리더십 교육과정 실시

YWCA, 홈페이지 접수

여성 인력의 활용은 미래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으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인사관행이 줄고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100대 기업에서 여성 직원 비율은 23%에 머물러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50%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

육아와 가사 노동의 부담을 여성이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과 커리어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남성보다 여성 리더에게 훨씬 크다. 특히 조직 내 비전이 높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중소기업 근무 여성들이 개인적 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워 역량개발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YWCA는 1~3년차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직장 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 'Job & 樂 日 Up'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직장 여성들의 창조적 리더십 개발과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과 집단 코칭으로 잠재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 교육과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women@seoulywca.or.kr)로 보내면 된다. 교육비 65만원 중 55만원을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며 본인은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문의 서울YWCA 여성리더십 교육팀 02)3705-6097

/정혜인 기자

강강술래 '신세계SSG 입점' 기념행사

육포 40% 할인 등 풍성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신세계 프리미엄 식품관 'SSG 푸드마켓' 입점 기념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sg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갈비맛 쇠고기육포' 10봉(50g)은 3만6000원, 20봉은 7만1000원, 국산 돼지고기 70%에 흑염자를 접목한 '흑염자한돈너비아니'(3세트)는 2만16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쇠고기육포는 방부제·조미료·발색제를 일체 넣지 않았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패키지에 이중포장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영양 간식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쇼핑몰과 전 매장에서는 이달 말까지 국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모차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30% 할인 판매한다.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월한우떡갈비'(360g×3박스 4만2000원)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600㎖ 5팩 15인분 3만8400원)도 30% 할인가로 살 수 있다.

다음 카페 '짠돌이 카페'의 슈퍼짠 9인이 공개한 알뜰 소비방법과 알짜 저축 노하우를 담은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길벗 출판사)과 주말 밤 노려비 여행지로 딱 맞는 홍콩에서 꼭 보고 즐겨야 하는 것만 담은 '홍콩 주말여행 코스북'을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경품이벤트에 신청 글을 올리면 참여 가능하다.

/장병일 기자

2014년 5월 5일(월) 오후3시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사)하피데이앙상블 www.harpydayensemble.co.kr

주관 | stage one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문화재단

티켓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R석 가족석: 3인 이상 구매시 1매당 20% 할인) 관람가 5세 이상(2010년 1월 이후 출생)

공연문의 | (02) 780-5054 예매처 | SAC Ticket sacticket.com 02-580-1300 | YES24.COM yes24.com 1544-6399 | AUCTION 티켓 ticket.auction.co.kr 1566-1369 | 인터파크 interpark.com 1544-1555 | 티켓링크 ticketlink.co.kr 1588-7890

"건보공단 DB로 위법성 입증"

김태백 서울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축한 국민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그동안 축적된 DB의 정보를 통해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DB가 담배소송의 승패를 가늠할 쟁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김태백(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 3000억 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 DB 구축을 완료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추가 지출 재정이 무려 1조 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21.8%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흡연자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DB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등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소송도 중요하지만 이 소송을 계기로 범국민적 금연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hsoul38@

집먼지 진드기 잡으려면…

비염·천식 주범…햇볕에 30분이상 말려 소독

미세먼지와 황사·꽃가루 등 각종 유해물질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실내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머무는 이불과 매트리스 등 침구류는 수면 중 흘린 땀과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 집먼지 진드기의 사체와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기 일쑤다.

특히 실내 침구류 등에 서식하는 집먼지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이 미세먼지와 결합한 '하우스더스트'는 아토피·비염·천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많은 양의 땀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뒤집어서 10분 정도 말리는 게 좋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불을 세게 털어 각질과 비듬 등 집먼지 진드기 사체나 배설물 등을 털어주고 햇볕에 30분 이상 말려 소독해야 한다.

세탁 시 물의 온도는 최소 55℃ 이상이어야 이불 속까지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고 세탁 후에도 이불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두드리고 먼지를 털어야 더욱 깔끔해진다. 잦은 세탁이 힘들다면 3개월에 한 번씩 침구의 좌우 방향을 바꿔주고 6개월에 한 번씩 아래 위를 뒤집어 주면 좋다.

이불은 소재에 따라 관리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 양모 이불과 거위털 이불은 드라이클리닝 및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물건을 올려놓으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오리털 이불은 자주 세탁하면 이불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2회 정도 세탁을 권장하며 극세사 소재는 이불을 턴 다음 뒤집어서 개어 놓으면 진드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불을 햇볕에 널어놓을 공간은 물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하우스더스트를 제거할 수 있는 침구 살균청소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침구청소기는 침구류 뿐 아니라 커튼·소파·카펫·러그 등 각종 패브릭 소재도 청소할 수 있어 더 실용적이다.

침구 살균청소기 전문기업 레이캅코리아의 이성진 대표는 "침구살균청소기는 사용 후 눈으로 직접 침구 속 먼지를 확인할 수 있고 전문 청소 업체의 도움 없이 가정에서 손쉽게 침구관리를 할 수 있어 주부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아란기자 a.jung0404@metroseoul.co.kr

"맛있는 마늘빵 사세요"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까지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이성당·성심당에 이은 세번째 유명 베이커리 초대 행사로 '용정은 베이커리 행사'를 벌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 업체의 인기 상품인 마늘빵, 월루커락 식빵, 제주 찹쌀빵, 소보로빵 등 다양한 빵을 공개한다. 특히 마늘빵은 제주 본점에서만 월 1만 개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롯데백화점 제공

그랜드힐튼서울, 어린이날 이벤트

5월 4~5일 마술나라 콘셉트

그랜드 힐튼 서울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특선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월 4일과 5일에 걸쳐 이틀간 진행하며 시저 레스토랑과 에이트리움 카페를 연결해 더욱 많은 고객이 어린이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행사 기간 동안 마술나라 콘셉트로 꾸며진 레스토랑에서 셰프들은 베스트 키즈 요리로 손꼽는 정통 파스타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을 준비한다.

아울러 주우철 마술사의 공중부양, 카드마술 등의 다양한 마술쇼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벤트 기간 동안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고객에게 어린이 놀이용 당글래 학용품과 스펀지 머리띠 등 깜짝 선물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1부(오후 12시~1시 30분)와 2부(오후 2시~3시30분)로 나눠 진행하며 가격은 어른 7만 6000원, 어린이는 3만8000원이다. 문의 및 예약: 시저 레스토랑 02-2287-8271·8272·에이트리움 카페 02-2287-8270 /김학철기자 kimc0604@

고준희·이종석 '백허그' 눈길

배우 이종석과 고준희가 유기농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밀크카우'의 모델로 발탁돼 최근 강남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광고촬영을 마쳤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황재용기자

아놀드파마 '박병호 모델로'

아놀드파마는 최근 넥센 히어로즈의 간판 박병호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 드라이코튼 피케티셔츠의 TV CF를 공개했다. 이 셔츠는 땀 흡수가 빠르고 건조가 쉽다. /김학철기자

나포츠족용 '야간 안전용품' 불티

옥션 LED 신발끈 등 인기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야간에 걷기·달리기·자전거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나포츠족'이 늘고 있다.

나포츠족이란 야간을 뜻하는 나이트(Night)와 운동을 뜻하는 스포츠(Sports)를 합성한 신조어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안전한 운동을 돕는 의류를 비롯해 운동화·운동 용품들이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4일 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 동안 환절기 아웃도어 의류로 활용도가 높은 바람막이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신장했다.

특히 옥션이 한 주간 베스트 인기 상품에 오른 '르꼬끄' 바람막이(5만9000원), 점퍼는 다양한 원색 컬러로 어려운 어두운 밤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러닝화도 같은 기간 판매율이 60% 증가했다. 러닝화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광색이나 원색 컬러로 포인트를 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며 찾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푸마의 '모비움 엘리트 운동화(10만4000원)'는 낮에는 빛에너지를 흡수해 밤이 되면 네온 컬러로 빛이 나기 때문에 야간 러닝족의 안전성을 높였다. 기본 러닝화에는 'LED 신발끈(3900원·사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야간 라이더들도 많아지면서 이 마켓에서 자전거 판매율은 30%, 관련 용품은 20% 각각 상승했다. 자전거의 전조등·후미등과 같은 안전장치는 필수다. 주간 베스트 상품인 'US 미니종 라이딩 랜턴과 후미등(1만1900원)'은 랜턴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에 탈부착이 가능하고 후미등은 일자형·타원형 중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정원일기자 won@

언니들의 나미, 김지현, 니키타(왼쪽부터)가 성인 여성의 공감을 담은 음악으로 차별화를 선언했다 /마운 엔터테인먼트 제공

“연상녀라면 누구나 공감할 걸요”

평균 나이 37세 여성 3인조 그룹 언니들

룰라 김지현, 니키타·나미와 함께 아이돌 일색 가요계 신선한 충격

소녀들로 이뤄진 아이돌 그룹 일색의 가요계에 평균나이 37.7세의 '언니들'이 등장했다. 제목마저 범상치 않은 '늙은 여우'를 들고 나타난 여성 3인조 언니들은 인터뷰 전 약간 센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만나본 그들은 흔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하는 소탈한 멋진 언니들 같은 모습이었다. 룰라의 김지현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언니들은 분명 평범한 걸그룹과는 차이가 있다.

"저희가 걸그룹은 아니죠"

룰라의 김지현, 월드컵 가수 미나의 동생 니키타, 제2의 싸야로 불렸던 블락원의 나미까지 각자의 내공을 가진 세 사람이 모이게 된 이유에 대해 니키타는 "참 신기한 인연이다"고 말했다.

김지현은 처음에 솔로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 확실한 콘셉트가 필요했고 때마침 실력 있는 동생들이 떠올랐다고 한다.

니키타는 "언니(미나)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지현 언니와 알게 됐어요. 이후 언니가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전 그때 제 친구 다미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라고 말했다.

다미와 니키타는 15년 지기로 나미는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블락원 이후로 2년 넘게 가수가 아닌 보컬 트레이너로 일했어요. 노래를 부르는 일이지만 무대 위에 서는 것과 뒤에 있는 일은 다르니까요. 또 혹시나 같은 팀으로 활동하다 성미(니키나)와의 우정에 금이라도 갈까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니키타의 설득 끝에 세 사람은 언니들로 뭉쳤다. 니키타는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김지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때 룰라의 노래로 안무를 짜고 장기자랑 무대에 올랐어요. 근데 진짜 김지현이랑 무대에 선다니 정말 신기하죠."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가사

타이틀곡 '늙은 여우'는 신나는 복고 멜로디에 현실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다. 김지현은 "노래에 맞춰 콘셉트도 복고풍이다. 의상도 옛날 1960~1970년대 펄시스터즈가 떠오르게끔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룹명 역시 당시 활동하던 팀들 이름처럼 김지현과 누구들, '무슨 시스터즈'로 지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지현이 녹음실에서 "그냥 언니들은 어때"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결정됐다.

늙은 여우 가사는 연하남을 사랑하는 나이 많은 여자의 마음을 담았다. 김지현은 "나이 때문에 상처받은 연상녀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노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미는 "(연하남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심이어도 사람들은 나이 많은 여자의 순수한 마음을 색안경 끼고 본다"며 직설적인 가사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수록곡 '강남누나' 역시 연상녀의 입장을 대변했다. 연하남에게 편한 누나로 다가서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연상녀의 심리를 '누나는 너의 신용카드, 종신보험' 등의 독특한 가사로 풀어낸 '강남누나'에 대해 니키타는 연하남과 잘 해보고 싶은 연상녀들의 노래방 애창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인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

룰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김지현은 "작년에 청춘 나이트 콘서트를 통해 여전히 많은 팬이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받았다"며 "언니들 활동으로 다시 팬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 니키타·나미와 함께 신인의 자세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미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언니들 활동을 열심히 또 재밌게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니키타는 "원래 활발한 성격인데 요즘 의욕이 넘치다 못해 과한 것 아니냐며 주변에서 농담 삼아 말씀해주신다. 하지만 중국에서 친언니와 활동하는 대신 지현 언니, 친한 다미랑 언니들 활동을 택한 만큼 더욱 열심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윤지현기자 anakin@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엑소

슈퍼주니어-M의 조미와 에프엑스의 빅토리아

엑소 일본 10만팬 몰이 '포효'

데뷔 전 무대 응모만 50만 - 슈주M·에프엑스 中 시상식 수상

국내 무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소속 가수들이 아시아 전역을 흔들고 있다.

SM 막내 그룹 엑소에 대한 아시아 팬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일 월드스타 섬룸 자선 콘서트에 참석한 엑소는 멋진 무대와 퍼포먼스로 현지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콘서트에서 엑소는 '늑대와 미녀' '으르렁' 등 2곡을 선사하며 에너지 넘치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얻었다. 엑소가 무대에 등장하자 현지 팬들은 열광적으로 함성을 지르며 노래를 모두 따라 부르는 등 공연을 열정적으로 즐겨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엑소 그리팅 파티 인 재팬-킬로우' 행사에는 일본 데뷔 전 첫 이벤트임에도 10만 명의 팬이 몰려 엑소의 저력을 보여줬다.

현지에 정식 데뷔하지 않은 해외 아티스트가 첫 이벤트를 10만 명 규모로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엑소는 이미 이벤트 개최 전부터 티켓 응모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4회로 예정됐던 이벤트를 5회로 늘렸다.

또 그룹 슈퍼주니어-M과 걸그룹 에프엑스는 중국 그래미 어워드로 불리는 '음악풍운방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국 내 인기와 가수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제14회 음악풍운방 시상식은 지난 13일 중국 심천만체육관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날 슈퍼주니어-M은 '최고 인기그룹상'과 더불어 지난 해 활동했던 '브레이크 다운'으로 '최우수 뮤직비디오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에프엑스는 '해외 우수 퍼포먼스상'을 수상해 아시아권 인기를 입증했다. 이외에도 데뷔 14년차를 맞은 보아는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진출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윤지기자 yjw@metroseoul.co.kr

섹시 종결자의 '예쁜 속옷' 섹시 디바 지나가 오는 21일 신곡 '예쁜 속옷'으로 돌아온다. 14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 그는 화이트 시스루로 몸매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차원이 다른 섹시美를 과시했다. 그동안 당당한 캐릭터를 형성했던 지나는 풋사랑 뒤에 아픔지는 사랑 노래 '예쁜 속옷'으로 여자들의 순수하고 솔직한 감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플라이투더스카이 우리도 재결합

버즈 이어 인기그룹 활동 재개

아이돌 밴드의 대명사 버즈와 남성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가 나란히 컴백을 예고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초중반 절정의 인기를 누린 팀들로 가창력과 퍼포먼스를 두루 갖추고 있다. 다양한 히트곡도 보유하고 있다.

14일 재결합 및 가요계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린 플라이투더스카이 측은 "지난 2009년 데뷔 10주년 기념 정규 8집 '디세니엄' 발표 이후 개별 활동에 돌입했던 플라이투더스카이는 5월 중순 새 앨범을 발매하며 완전체로 가요계에 돌아온다"며 5년 만의 재결합 및 새 음반 발표 소식을 전했다.

지난 1999년 데뷔한 플라이투더스카이는 환희(왼쪽 사진)의 힘 있는 보컬과 브라이언(오른쪽)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앞세워 '데이 바이 데이' '가슴 아파도' '미싱 유' '남자답게' '습관' '그대는 모르죠' 등 애잔한 R&B 발라드 히트곡들을 숱하게 탄생시킨 팀이다.

플라이투더스카이에 앞서 지난 10일 버즈도 재결합 및 새 음반 발매 소식을 전해 팬들을 즐겁게 했다. 2003년 민경훈(보컬), 신준기(베이스), 손성희(기타), 윤우현(기타), 김예준(드럼) 체제로 데뷔해 2006년 3집으로 활동할 때까지 '겁쟁이'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남자를 몰라'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다. 버즈는 원년 멤버 그대로 최근 브라운아이드소울이 소속된 산타뮤직과 계약을 맺고 가요계 복귀를 선언했다.

오랜만에 가요계 컴백을 선언한 만큼 어떤 곡들로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순호기자

박재범 '메트로놈' 아시아 5개국 1위

가수 박재범(사진)이 신곡 '메트로놈'으로 아시아 점령에 나섰다.

지난 12일 전 세계 아이튠즈에 공개된 박재범의 새 디지털 싱글 '메트로놈'이 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홍콩 등 아시아 5개국의 아이튠즈 힙합/랩 부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인도네시아 '메트로놈' 차트에선 2위에 올랐다.

박재범의 컴필레이션 AMOG의 공동대표인 시이먼 도미닉(쌈디)과 프로듀서 그레이가 함께해 완성도를 높인 '메트로놈'은 최근 연예계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썸'을 슬로우 잼 비트에 녹여낸 곡으로 자꾸만 어긋나는 연인 관계를 박자를 맞추는 메트로놈에 빗대어 표현한 거침없는 가사와 박재범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 있다.

한편 박재범은 지난달 북미지역 음악 페스티벌 'SXSW 2014'에 참가해 해외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앞서 발표했던 첫 번째 정규 음반 '뉴 브리드'는 미국 아이튠즈 R&B 소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이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메트로놈'의 차트 석권은 박재범이 정식 해외활동은 물론 현지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 한국 힙합이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지연기자

세상은 우릴 기억할거야

Musical
BONNIE & CLYDE
보니앤클라이드

GRAND OPEN
2014.4.15

2014.4.15~6.29 BBC아트센터 | BBC홀

Book by IVAN MENCHELL, Lyrics by DON BLACK, Music by FRANK WILDHORN

송윤아 '희망TV' 3년 만에 컴백

배우 송윤아(사진)가 3년의 공백을 깨고 활동을 재개한다.

송윤아는 다음달 9·10일 방송되는 SBS '희망TV SBS'의 진행자로 발탁됐다. 2011년 tvN '코리아 갓 탤런트' 심사위원으로 합류한 이후 약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지상파 출연은 2008년 SBS 드라마 '온에어' 이후 6년 만이다.

'희망TV SBS'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에서 봉사활동에 나선 연예인들의 이야기와 기부 문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가수 이승철·김장훈, 배우 조성하·이태란·홍은희·류수영 등이 참여한다.

송윤아는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연기 활동도 재개할 지 관심을 모은다. /유순호기자 suno@

아이유 사인 폐북서 받자

소셜미디어 사인회 '원더풀 ' 이달 말까지

아이유(사진)가 글로벌 K-팝 팬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인회 '원더풀 팬 사이닝 이벤트'를 개최한다.

'원더풀 팬 사이닝 이벤트'는 지난 2월 출시한 K-팝 브랜드 원더케이가 처음 실시하는 팬 서비스다. 페이스북에서 스타와 팬이 1대1로 만나 진행하는 신개념 사인회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팬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용지에 아이유의 사인을 받아 출력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파일로 저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원더케이 측은 "이 이벤트는 글로벌 K-팝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스타를 만나고 팬 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K-팝 스타를 만날 기회가 없었던 팬들의 참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아이유와 함께 B.A.P가 K-팝 대표 가수로 참여하며, 원더케이는 이후 다른 두 팀을 멤버에 한 차례 더 이벤트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WONDERFUL
FAN SIGNING
EVENT

김정호 개인전 '백란청분'

고산 김정호의 개인전 '백란청분'이 16일부터 30일까지 우림화랑에서 열린다.

한국미술협회 문인화 초대작가이자 한국문인화협회 이사인 김 작가는 2006년 11월 '우직과 괴졸', 2012년 4월 '자명심화'에 이어 세 번째 개인전인 '백란청분'에서 고색창연한 고지에 담박하고 고졸한 품격의 난화 99점을 선보인다. 전시실 가득한 맑은 난향에 취해 한가로움을 누리며 찌들어진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예능·정극 이중생활 뭐가 진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장현성 /KBS 제공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장현성 /SBS 제공

이서진·성동일·장현성 장르 넘는 이색매력

예능에 출연해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 배우들이 정극으로 돌아왔다. 배우에게 예능은 대중과의 소통 창구로 기능하거나 웃긴 이미지

tvN '꽃보다 할배' 이서진 /tvN 제공

MBC '아빠 어디가' 성동일과 딸 성빈 /MBC 제공

를 각인시켜 자기의 신뢰을 곤란하게 하기도 한다.

배우 이서진과 성동일, 장현성에게 예능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들은 예능과 정극 사이에서 기분 좋은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서진은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에서 검사 강동석 역을 맡았다. 대대로 남의 집 식모였던 장소심(윤여정)의 아들이자 패거리 싸움꾼 형과 사고뭉치 동생을 두고 있는 그는 가난과 어린 시절 연였던 상처 때문에 과묵하고 우울하기까지 하다. 연인 차해원(김희선)에겐 "연극하지 말고 진짜로 연애하자"라고 직설적인 고백을 하는 등 박력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현재 tvN '꽃보다 할배'(이하 '꽃할배')에도 출연중이다. 강동석은 '꽃할배' 속 무뚝뚝이 국민 짐꾼 이서진과 정반대지만 그간 '이산', '봉새' 다모' 에서 보여주던 묵직함이 있었기에 색다른 재미로 와닿는다는 분석이다.

성동일과 장현성은 각각 MBC '아빠 어디가?'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에서 다정한 아빠로 큰 연기를 누리고 있다.

성준·성빈 아빠인 성동일은 tvN 금토극 '갑동이'에서 일단연쇄살안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갑동이'를 추적하는 카리스마있는 형사 양철곤으로 열연한다. 그는 이달 8일 제작발표회에서 "나는 생활 연기자라 이 캐릭터 저 캐릭터 가리지 않는다. 아이 셋의 가장이라서 주어진 대로 일해야 한다"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동이'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 세 아이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해 예능 속 정동일과 드라마 속 그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장현성은 준우·준서 아빠로 예능과 작품에서 대세로 거듭났다.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서 경호실장이자 대통령 이동휘(손현주) 저

KBS2 주말극 '참 좋은 시절' 이서진 /KBS 제공

tvN 금토극 '갑동이' 성동일 /tvN 제공

격범인 함봉수 역을 맡았고 현재는 과거의 인물로 가끔 등장하고 있다. 서늘한 눈빛은 배우 장현성의 상징이지만 지아를 보이며 활짝 웃으면 편안이 순박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모습이 '슈퍼맨'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면서 시청자에게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김효진기자 jsonhj38@metroseoul.co.kr

정선아 '위키드' 100회 공연

배우 정선아(사진)가 지난 13일 잠실 샤롯데시어터에서 뮤지컬 '위키드' 100번째 무대에 올랐다.

정선아는 "개인적으로 100회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 빡빡한 여정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위키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온 배우와 스태프에게 감사 드린다. 6월까지 남은 공연 동안 사랑스런 글린다답게 관객들에게 행복 넘치는 마법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선아는 공연 전 배우와 스태프들을 위해 '점 글린다의 디저트 카페'를 열어 커피와 고급 케이크 등 다양한 간식을 준비해 100회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같은 소속사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김준수의 응원 퍼레도 눈길을 끌었다. 김준수는 "누나는 글린다 그 자체야! 매력터짐 점 글린다 100회 축하!"이라고 쓰여진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무대를 축하했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원작보다 더 근접한 캐릭터라고 평가받는 정선아의 글린다 연기가 매 회 관객에게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개막 이래 15만 관객을 돌파한 뮤지컬 '위키드'는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김효진기자

연예인 모여 사니 이런 모습이…

손호영·최희·천이슬 출연 '셰어하우스' 16일 방송

올리브TV가 1인 가구 453만 시대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다 같이 사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제안한다.

오는 16일 오후 9시 첫 방송되는 '셰어하우스'는 한 지붕 아래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식구'라는 단어의 뜻에 맞게 방송인 이상민, 가수 손호영, 전 아나운서 최희, 배우 최성준·천이슬, 모델 송해나, 걸그룹 달샤벳의 우희, 디자이너 황영롱, 김재웅 등이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주택에 모여 살며 서로를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14일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수호 PD는 "단순히 모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밥을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주요 에피소드가 될 것"이라며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탄생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다양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며 활약 중인 이상민은 '셰어하우스'에서 맏형 노릇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은 "틀이 갖춰진 방송보다는 제 마음 가는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편하다"며 "이번에도 비호감, 호감 신경 쓰지 않고 식구들이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맏형으로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할 때 큰 가방 3개를 들고 갔는데 그 중 2개에 술이 가득했다"고 밝히며 "술을 많이 가져온 이유는 처음 만나는 식구들끼리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의 술은 아구여신 최희의 차지가 될 예정이다. '셰어하우스'에서 '야구여신' 이미지에서 벗어나 맛있는 음식과 술이라면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술희'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최희는 "틀에 박힌 삶을 살다 개성 강한 사람들과 살게 되니 깜짝 놀랄 일이 많다"며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시도하면서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천이슬은 "'셰어하우스'는 촬영이라기보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힘든 일 전혀 없이 즐겁게 촬영 중"이라고 전했다. 달샤벳의 둘째 언니 우희는 '셰어하우스'에서 막내로 변신해 언니 오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email]@metroseoul.co.kr

14일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올리브 TV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셰어하우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수 이상민(왼쪽부터), 아나운서 최희, 배우 천이슬, 달샤벳 우희, 배우 최성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제 6회 국제 孝만화 공모전' 개최

메트로신문·경민대, 내달까지 접수

메트로신문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민대학교 국제 효만화센터와 '2014 국제 효만화공모전'을 공동 주최한다.

올해로 여섯돌을 맞는 '국제 효만화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메트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이 행사는 한국의 효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제 4, 5회 대회에 1만4000여점이 접수됐고, 11개국에서 700여점의 해외작품을 응모하는 등 단일공모전사상 최대·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빈곤국 및 오지의 아동과 청소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3 국제 효만화공모전' 시상식 모습이다. /국제 효만화센터 제공

이 행사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효를 표현하고 세대간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새로운 효 문화를 추구하고 과거의 수직적인 효 문화에서 즐겁고 발랄한 효 문화를 창출한다.

이번 '제 6회 국제 효만화 공모전'은 제2의 도약을 위해 메트로신문과 경민대학교 국제 효만화센터뿐 아니라, 전국의 유력 언론사가 참여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응모분야는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이며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학생, 대학생 및 일반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다.

응모기간은 4월15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5월중 수상작을 발표해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www.hyotoon.com)를 통해 참조하면 된다.

<제6회 국제 효 만화공모전 일정>

일시	내용
2014년 4월 15일 ~ 2014년 05월 10일	접수 기간
2014년 05월 10일	공모전 응모 마감
2014년 5월 중순	심사(예심, 본심)
2014년 5월 말	1차 본상 및 특별상 발표 2차 특선, 장려, 입선 발표
2014년 5월 말 ~ 6월 초	시상식 및 전시: 서울메트로 전시관 (경복궁역)
2014년 6월 중	창립위원회 및 평가결과보고
2014년 6월 ~ 2014년 12월	사업정산 및 15년 사업계획 수립

심사위원들이 지난해 열린 '2013 국제 효 만화 공모전'에서 출품작들을 심사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사는 올 해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민대학교 국제 효만화센터와 '2014 국제 효만화공모전'을 공동 주최한다. /국제 효만화센터 제공

메트로신문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민대학교 국제 효만화센터와 '2014 국제 효만화공모전'을 공동 주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2013 국제 효만화공모전' 대상(왼쪽 사진), 금상(오른쪽) 수상작. /국제 효만화센터 제공

가져야 할 기본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지난 주말 류현진의 승리 소식이 있었다. 앞선 경기에서 크게 부진했기에 우려가 많았지만 7이닝 무실점 호투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가 좋은 투수라는 데 이견은 없다. 좋은 투수인 이유도 많다. 타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훌륭한 구질을 가졌고, 제구력이 뛰어나며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이다.

그를 판단하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하나다. 바로 그의 정신력에 대한 언급이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가짐에 높은 점수를 준다.

골프는 신동이 없다고 말하는 운동이다. 암벽 등반이 사람이 가진 가장 작은 근육을 발전시켜야 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골프는 그 반대다. 사람이 평생 쓸 일 없는 큰 근육을 훈련시켜야 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얘기다. 요는 큰 근육일수록 훈련되기가 어렵고, 훈련되더라도 잠깐만 소홀히 여겨도 원상 복귀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아마추어 골퍼들 중 골프를 빠르게 배우고 잘 치는 사람의 공통점은 평소 곧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척추가 바로 선 사람일수록 좋은 스윙을 하기 때문이다.

MIK중국수석패션산업단지가 건립 중이다. 지난 2009년 착공된 후 5년째다. 이 단지의 특성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에 있다. 새로운 보다 미래적 개념의 패션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만중 보끄레머천다이징 회장은 자신에게 평생 밥벌이가 돼준 패션이라는 세계에 가치를 되돌려주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패션 시장에 결초보은 할 요량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이 누린 기쁨을 환원시킬 수 있겠으나 그의 선택은 MIK였다. 어쩌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은 아닐까.

인궁즉반본(人窮則反本)이라는 말이 있다.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 사람이 어려운 궁지에 처하면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말이다.

류현진의 정신력이든 바른 자세로 곧은 척추를 만든 골퍼든 마찬가지다. 기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 시대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을수록 더욱 그렇다.

/한국패션협회 www.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7		1			
1	6			4	3			
2					7	4		
	3	1		5		8	7	
		8	6					9
			9	7			6	4
			4		5			
		2						1

	3			1		9		
1					4			2
9	7		2	8			6	
5		3				6		
				4				
		9				2		4
	5			2	6		9	8
2			4					1
		8		7			2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한누스
(에서 스도쿠 리미티드 (아이를 리모스 지유))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퇴직 6개월, 취업 힘듭니다 사세 접고 공부 열심히하길

vividred AB 여자 85년 4월 15일 20:00

Q 10개월 일하던 회사에서 권고 휴직을 당한 후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쉰지는 6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새로운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에도 잘 다니고 승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일자리조차 기회가 오지 않아 많이 불안합니다. 언제쯤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A 운을 오게 하는 방법 중에 독서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여 한단계 한단계씩 공부의 습관으로 해나간다면 성장해 나가기 마련입니다. 반면 목표 설정 없이 관리정성 사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과가 이루어 진다고들 하지요. 맞는 말이 기도하고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실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를 타고 있는 사주이므로 열심히 하는 실발지심이 적다고 봅니다. 사색을 접고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100세를 사는 현실에서 아직은 젊다고 보겠으나 명심하여 노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6월 신경과 안에 유의 하세요.

해운·무역쪽 일자리 찾는데 외국어실력 쌓으면 길 있어

TKrahfd 여자 85년 10월 12일 3시40분

Q 30살인데 29살 때부터 직장 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 때문인지 지금까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두식구인데 제 수입만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해운 무역 쪽으로 다녔기에 이직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야 경력이 되어 급여도 향상이 되더라고요.

A 동양고전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아니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풀이를 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먹을 걱정은 없게 마련이다. 마치 땅에서 자라나는 풀들이 각각 다 이름이 있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최고부동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면 자연히 의식주 걱정도 하지 않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운 무역 쪽이라면 반드시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융통성은 있으나 집념이 부족할 터이다 끈기를 갖고 외국어 실력을 키운다면 행살을 하러 여기저기에서 오게 된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5일 (음 3월 16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동쪽으로 웰타이민 웃는다. 60년생 불고기가 큰 값을 만난 형국~. 72년생 휘위권 때문에 쓴무상 자질이 생긴다. 84년생 할 일이 많아도 다서지 말라.

소 49년생 위험할 땐 곧 흔들지 말라. 61년생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73년생 조건이 너무 좋은 투자처는 의심할 것. 85년생 원하던 일은 성취한다.

호랑이 50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2년생 허들수록 마음을 비우라. 74년생 영업사원은 대박이 터지는 거래처가 생긴다. 86년생 돈으로 인한 친구와 마찰은 피하라.

토끼 51년생 계획은 차근차근 추진할 것. 63년생 자신에 자득해야 뜻을 이룬다. 75년생 돈을 빌리지 않는 재물는 바라지 말라. 87년생 졸속으로 세운 계획은 손해 부른다.

용 52년생 마음 비우면 편안해진다. 64년생 미온 수라네 뮈 거꾸로 틀리지 말라. 76년생 운기가 열려 거침없이 질주한다. 88년생 상황이 불리해도 곳대로 일어날여라.

뱀 53년생 궁지에 몰린 사람 외박 말라. 65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77년생 직장인은 시회라는 술을 잘 보리. 89년생 무모하게 도전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

말 42년생 부실한 사업은 접는 게 좋다. 54년생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지. 66년생 금칫덩이 들쳐먹은 들러간다. 78년생 고민은 짧게 하고 실행에 옮겨라.

양 43년생 배우자와 충돌 조심~. 55년생 문서 관련 문제는 당분간 미루는 게 좋겠다. 67년생 길이 막히면 다른 곳에 눈 돌려라. 79년생 청룡이 구름을 만난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하다. 56년생 갈림길에선 호흡 가다듬어라. 68년생 직장인은 아이디어로 조직 이끈다. 80년생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슴과 같은 용기 필요~.

닭 45년생 도움을 받더라도 당당할 것. 57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9년생 돈도를 쫓아가려면 스스로 계획짤 하라. 81년생 시작한 일은 끝장 보는 게 좋다.

개 46년생 딱 한 김에 제사 지낸 격이다. 58년생 엉뚱한 오해 사지 않도록 조심~. 70년생 거울 잡서 찍어다 기지개 켠다. 82년생 자책감에 스스로 얽매이지 말라.

돼지 47년생 손님은 소박하게 대접하라. 59년생 작은 실제가 오히려 득이 된다. 71년생 갈수록 변수가 많으나 끝까지 포기 말라. 83년생 상사의 칭찬에 출근이 즐겁다.

막내 NC의 이유 있는 반란

프로야구 개막 15일 만에 정상…타율·방어율도 1위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NC다이노스(사진)가 막내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막한지 보름만인 13일 단독 1위까지 올라갔다.

시즌을 앞두고 대다수 감독이 2014시즌의 '다크호스'로 지목한 것에 응답이라도 하듯 NC는 승승장구 하고 있다.

NC는 지난주 가장 뜨거운 팀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싹쓸이 덤으며 올 시즌 첫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마산 한화 이글스전에서 1승 2패로 밀렸지만 원정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지난 주 4승(2패)을 챙겼다. 14일 현재 8승 4패 승률 0.667로 단독 1위다.

이 같은 성적은 팀 타율과 평균자책점에서 완벽하게 드러난다.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방망이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48안타를 몰아 때려 27점을 뽑았다. 지난해 팀 타율 0.244로 최하위였던 NC 방망이는 1위인 0.330까지 치솟았다.

마운드도 안정감을 찾고 있다. 지난 시즌 찰리 쉬렉-에릭 해커-이재학이 마운드를 이끌었다면 올 시즌에는 테드 웨버까지 합류했다. 여기에 불펜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마무리 김진성이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원종현과 홍성용 등 새로운 전력이 불펜을 두텁게 만들었다. 선발과 불펜이 조화를 이루며 팀 평균자책점은 3.65로 1위다.

여기에 시즌 초반 원정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15일부터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르는 NC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NC는 KIA와 개막 원정 3연전에서 2승 1패를 마크했다. 또 지난 주말 LG와의 원정 3연전에서는 싹쓸이하며 원정경기에 강한 모습을 드러냈다. 총 6연전에서 5승 1패를 올렸다. 반면 홈 경기는 3승3패를 기록했다.

2년차 신생구단 NC가 롯데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훈기자 yse@metroseoul.co.kr

불안한 출발 윤석민의 미래

이원호의 베이스볼 카페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투수 윤석민의 발걸음이 무겁다. 어렵게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입단해 마이너리그(트리플 A 노포크 타이즈 소속)에서 개막을 맞았다. 두 경기에 선발투수로 등판했으나 좋은 투구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눈에 우려가 담겨있다.

지난 9일 첫 상대인 그윈넷과의 경기에서 2⅓이닝 동안 11안타를 맞고 9실점했다. 14일 샬럿 나이츠와의 경기에서는 보다 나은 투구를 했으나 6피안타 4볼넷 4탈삼진 3실점했다. 두 경기 모두 패전을 안았다.

윤석민은 뒤늦은 계약과 비자발급 때문에 스프링캠프에서 전반 경쟁을 벌이지 못했다. 시범경기 막판 두 경기에 나섰지만 이미 볼티모어의 선발진 구성은 끝난 상황이었다.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1년 차는 마이너리그에서 보내고 2년 차부터 메이저리그에 오르는 수준이다.

벅 쇼월터 감독은 립서비스 할 수 있지만 윤석민을 마이너리그에 보내면서 "반드시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윤석민이 얼마나 빨리 메이저리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이다. 하지만 두 경기의 부진은 조기 ML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경기를 본다면 스피드, 제구력, 변화구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엄밀하게 말해 윤석민은 2011시즌 투수 4관왕을 따냈던 볼을 되찾아야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힘 있는 직구를 무릎 낮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속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다른 변화구가 먹힐 수 있다.

지금은 그 직구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앞으로 나은 볼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KIA 시절 치커는 윤석민은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철저하게 관리해왔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초반 부진이 아쉽지만 지금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일 뿐이다. 윤석민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지소연 잉글랜드 데뷔 1분 만에 골

첼시 FA컵 8강 견인

'지메시' 지소연(23·첼시 FC 레이디스·사진)이 잉글랜드 공식 데뷔전 1분 만에 골을 터뜨리며 골잡이 면모를 드러냈다.

지소연은 14일 영국 스테인스타운 FC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리스톨 아카데미와의 잉글랜드 FA컵 여자 슈퍼리그 5라운드(16강전)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경기 시작 1분 만에 데뷔 골을 터뜨리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날 경기에서 지소연은 추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연장 후반까지 12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강한 체력을 과시했다. 지난 6일 에스턴빌라와의 경기에서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지소연은 공식 경기 데뷔전에서도 골을 터뜨리며 활약했다.

첼시 레이디스는 지소연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전반 27분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허용하며 연장 접전을 치른 끝에 연장 후반 5분 터진 레이첼 윌리엄스(26)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두며 FA컵 6라운드(8강)에 진출했다.

첼시 레이디스는 "지소연이 시작 1분만에 데뷔골을 기록했고 이어 활약은 계속됐다. 굉장한 경기를 펼쳤다"면서 "특히 그는 데뷔전에서 에너지가 넘쳤고 밸런스 등과 좋은 패스를 연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연이 전반 선제골 이후 계속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다"면서 "후반전에도 지소연은 브리스톨 수비진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성운기자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왼쪽)이 14일 열린 창단발표 기자회견에서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에게 창단 의향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랜드 "최고 인기 구단 목표"

프로축구단 창단 발표

이랜드그룹이 프로축구 최고 인기 구단 건설을 선언했다.

이랜드 축구단(가칭) 구단주인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은 1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팬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구단 운영으로 한국 프로축구 발전에 한 축이 되기를 희망한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넘버원 구단이 되는 게 목표"라며 창단을 발표했다.

이날 창단 의향서를 프로연맹에 제출한 이랜드그룹은 올해 말까지 창단 작업을 마치고 2015시즌부터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참가한다. 서울시를 연고로 하며 홈구장으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단명 엠블렘 등도 팬들의 공모를 통해 정하는 등 창단 단계부터 팬 참여를 중요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 연고 구단인 K리그 클래식(1부리그) FC서울과 '강남·강북 더비'를 실현해 K리그 흥행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의류업·식음료업·유통업 등에서 25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중국·미국 등 전 세계 주요 10개국에 법인을 운영,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왓슨 마스터스 두 번째 우승

2014 시즌 첫 번째 메이저골프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버바 왓슨(미국·사진)이 두 번째 그린 재킷을 입었다.

왓슨은 14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435야드)에서 열린 제78회 마스터스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80타를 쳤다. 2012년에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왓슨은 2년 만에 그린 재킷을 되찾으며 오거스타의 강자로 떠올랐다. 우승 상금은 162만 달러다.

만 21세가 안된 조던 스피스는 왓슨과 공동 선두로 출발해 역대 마스터스 최연소 우승을 노렸지만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2위(5언더파 283타)에 머물렀다.

마지막날 1타를 줄인 요나스 블릭스트(스웨덴)가 스피스와 동타를 이뤘다. 한국 선수로 유일하게 컷을 통과한 최경주(44·KB금융그룹)는 합계 6오버파 294타를 쳐 공동 34위로 대회를 마쳤다.

/정성운기자

지난해 마스터스 우승자인 애덤 스콧(왼쪽)이 올해 우승자 버바 왓슨에게 그린 재킷을 입혀주고 있다. /AFP 연합뉴스

현대건설
지하철 고객이 몰려드는!
광장에서
문화와 만남으로 넘치는!
거리까지
문정역 M7 상가분양
STREET
SQUARE
8
문정역
미래형 복합업무단지
엠스테이트
역세권의 가치에 광장의 예술을 더하다! M7 상가분양
02)3432-3959
KAIT 한국자산신탁
현대건설